

## 노동산업(勞融産業)과 지역파트너십

박기성\*

노동, 즉 인적자본과 실물자본은 2대 생산요소이다. 실물자본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산업(金融産業)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인적자본은 실물자본보다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가 더 심각하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노동매개기관이 거의 없고,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시장이 존재하고 발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조차 확산되어 있지 않다. 공공 고용안정기관이 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수입 규모는 미국의 1/13인 반면에 고용서비스산업의 규모는 미국의 1/6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는 인력공급뿐만 아니라 채용, 훈련, 평가, 보상, 전직(outplacement) 등 인사관리를 대행해 주는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PEO)이 700여 개 존재하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1년 현재 417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할 여지가 크므로 노동을 실물자본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노동산업(勞融産業, 즉 인적자본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물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총칭하여 금융산업이라고 하듯이, 노동매개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총칭하여 노동산업이라고 명명한다. 노동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물자본을 다루는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인적자본을 다루는 민간 노동기업(勞融企業)을 육성하여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교육·훈련, 취업알선·정보·상담·준비, 파견·용역근로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전반을 대행해 주는 등 인적자본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산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이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도했다면 21세기에는 노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단위의 정확한 노동시장 성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kpark@kli.re.kr).

가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80~100개 안팎의 지역단위로 구분하고, 지역별 실업률, 취업인구비율 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소멸, 번듯한 일자리의 증감,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성과 관련 통계와 광역별 및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순위를 공표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면 지자체와 선출직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기업 수준을 넘어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는 전문성 제고와 경험 축적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역파트너십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별 노용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역파트너십과 인적자본에서 민간 노용기업의 협력자이면서 노용기업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공공 및 민간 노동매개기관의 협력과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에 의해 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 인력매개기관들(workforce intermediaries)이다. 덴마크의 경우도 고용센터가 지역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노동매개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KL**